



출가분한 고3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 동아어고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출가분한 표정으로 교사장을 나서고 있다. /김애리 기자

‘킬러문항’ 배제...작년 수능 보다 쉬웠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킬러문항’이 배제돼 지난해 ‘불수능’과 비교해 쉬웠지만 평이했던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됐다. ▶관련기사 6·7면

공교육과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된 데다, EBS 연계율 50%를 유지하며 기본적인 변별력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다만, 의대 증원 이후 첫 수능인 만큼 의대에 도전하는 N수생을 포함한 최상위권 다수가 수능을 지났을 것으로 예상돼 정시 도전에 나선 고3 수험생들의 선택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어영역은 올해 9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을 유지해 지난해 수능보다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역대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된 2024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전년도보다 16점이 높은 150점인 반면, 수능 전 마지막 9월 모의평가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23점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120점대면 쉬운 시험, 140점대 중후반대면

EBS 연계율 50% 유지 기본적 변별력 확보 수준
‘의대 증원’ 여파 최상위권 동점·만점 속출 전망
18일까지 문제·정답 이의신청, 내달 6일 성적 통지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국어영역의 EBS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50% 이상으로 독서4개 지문 중 3개, 문학 7개 작품 중 3개가 EBS 연계 교재에서 출제됐다.

국어영역 독서부문 10-13번 지문인 ‘영상 생성을 위한 인공지능 확산 모델’에 ‘노이즈’라는 단어만 4번 이상 등장해 수험생 당황하게 하는 문제로 꼽혔다.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전반적으로 쉬우면서 상위권 변별력은 확보된 시험으로 평가됐다. 공교육 내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 문항, 지나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 불필요한 개념으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항 등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됐다.

영어영역도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으며 평이했던 9월 모의평가보다 변별력을 갖췄다는 게 중론이다. 문항은 교육

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해 출제됐다. 33번과 34번 등 빈칸 추론 문제는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꼽혔다.

영어영역 EBS 연계율은 55.6%(25문항)로 가장 높았다. 듣기 및 말하기 문항에서는 14개 문항이, 읽기와 쓰기 문항에서는 11개 문항이 각각 출제됐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어 영역은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 평가 차원에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한 수준을 유지했다.

입시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수능 난도가 지난해보다 쉬워지면서 ‘준킬러 문항’이라고 불릴만한 문제가 없어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상위권 의대 경쟁력 확보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국어, 수학에서 1등급 구간대 학생 동점자 속출과 만점을 맞고도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어 과탐탐구 영역에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최종철 동국대 교수는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골고루 출제해 변별력을 확보하려 노력했다”며 “킬러문항은 완전히 배제하려고 노력했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의 확인을 받았다. 준킬러문항도 충분히 걸러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18일까지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20일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성적은 오는 12월 6일 통지할 예정이다. /김디 기자

Today	
신안유기농영농조합 김용현 명인 12면	
키워드로는 ‘명화’ 이야기 14면	
동인선생 역경경좌... 육십사과 15면	

무안 ‘뿔흙 불법 성토’ 각종 의혹 모두 사실로

〈속보〉광주매일신문이 지난 5·7월 12차례 걸쳐 집중 보도한 무안군 남안신도시 오룡2구 인근 대규모 ‘뿔흙 불법 성토’ 목인·방조 관련 각종 의혹이 전남도의 특정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14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8·10월 3개월 동안 무안군 건축과·농업정책과·지역개발과·일로읍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법·부당 사항은 농지법·국토계획법·환경법 위반 등 농지 관리 소홀·부치 관련 사안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11일 처분심 의위원회를 열어 최소 2명 이상의 징계

실제 무안군은 지난해 3월 초 현장 점검을 통해 망월리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38필지(총 면적 88ha)에서 농작물 재배·토지 개량에 적합하지 않은 뿔흙 불법 성토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무안군은 외관 상 폐기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굴삭하거나 주무부서인 환경과에 토지오염 분석 의뢰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2m 이상 성토 토지를 다수 확인했음에도 관련 부서인 지역개발과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고발 등 행정처분 역시 전무했다. 특히 무안군은 33필지에 대해 3차례 원상 회복 명령을 내

본보 5-7월 12회 보도...전남도, 3개월 특정감사
농지법·국토계획법 등 위법·부당 사항 7건 확인
처분심의위, 무안군에 2명 징계·10명 문책 요구

를 포함해 12명의 업무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무안군에 요청했다. 무안군 주무부서 3곳에는 주의 처분도 내렸다.

현행 공무원 징계 규정상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6급 이하 공무원 중징계는 상급 기관인 시·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징계 사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이번 주중 처분 요구서를 무안군에 발송할 방침이다. 무안군은 이를 토대로 자체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 수위 등 최종 처분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매일신문은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소재 대규모 농지에서 이뤄진 뿔흙 불법 성토 관련 무안군의 목인·방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본보 5월 21일·5월 27일·5월 29일·6월 5일·7월 13일·7월 18일 1면 등)

려 농고도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자 뿔흙 위에 양질의 흙을 적토하는 것으로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

게다가 나머지 5필지의 경우 ‘우량 농지 조성’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만 행정처분 없이 단순 계도 조치 후 준공 승인까지 내줬다.

이와 함께 무안군은 17필지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까지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본보 보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뿔흙 불법 성토 농지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올해부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농지의 경우 지자체 협조를 받아 기존 표준조사 대신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감사 내용을 상세히 밝힐 수는 없다”며 “보도된 내용 대부분 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재철·양시원 기자

제5회 광주매일신문

광주·전남

관광대상 공모

광주 전남 관광대상 공모부문 및 시상

- ▶ 종합대상 부문
- ▶ 콘텐츠 MICE 부문
- ▶ 숙박업 부문
- ▶ 축제 부문
- ▶ 여행업 부문
- ▶ 특별 부문

접수자격 자치단체, 기관, 기업체, 단체, 협회 등

접수방법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dkyo@kakao.com
* 신청서는 화면 상단 관련 파일 다운로드 클릭

접수마감 2024년 11월 15일(금) 도착 분 마감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주최 | 한국관광연구학회

주관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